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간송 전형필

— 이 충렬 지음

김영사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간송 전형필

간송 전형필

저자_이충렬

1판 1쇄 발행_2010. 5. 3.

1판 26쇄 발행_2018. 11. 26.

발행처_김영사

발행인_고세규

등록번호_제406-2003-036호

등록일자_1979. 5. 17.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우편번호 10881

마케팅부 031)955-3100, 편집부 031)955-3200, 팩시밀리 031)955-3111

저작권자 © 이충렬, 2010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349-3942-9 03990

홈페이지_<http://www.gimmyoung.com> 블로그_ blog.naver.com/gybook

페이스북_facebook.com/gybooks 이메일_ bestbook@gimmyoung.com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충렬 지음



김영사

서문 여기, 간송 선생이 있다 4

청잣빛 하늘, 천 마리의 학 15
무거운 짐을 진 식민지 소년 35
무엇을 할 것인가? 53
평생의 스승, 위창 오세창 65
하늘이 내린 재산 77
첫 수집품 93
세상의 눈에서 멀어져야 문화재를 지킨다 115
고서화 수집의 전진기지, 한남서림 131
황금광 시대의 꿈 153
우정과 헌신의 동지, 이순황과 신보 177
추사를 만나다 191
겸재와 진경시대 211

현해탄을 건너 혜원을 찾아오다 235
위기! 257
국보가 된 참기름병 275
기와집 400채의 승부 295
우리나라 최초 개인 박물관, 보화각 319
구제와 교육사업 337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하다 361
아, 전형필 383
해설 간송 전형필 수집품의 문화사적 의미 398
간송 수집품 중 지정 문화재 목록 403
간송 전형필 연보 404
참고 도서 406
수록 작품 찾아보기 408

1942년 새해가 밝았다. 전형필은 미국이 일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분간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처신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눈에 띠는 식민지 조선의 명사였다. 전형필은 눈 감고 귀 막고 입도 열지 않았다. 오로지 학교 내실을 다지는 일에만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새해 휘호는 선친의 유훈을 기리는 의미에서 ‘고매한 기풍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이라고 쓰고,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려 강당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교육 사업에 매진하게 놔두지 않았다. 식량 배급 제가 강화되고 일제의 수탈이 점점 혹독해지자 지방의 양반집에 전해 내려오던 옛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책들이 한남서림으로 몰려든 것이다. 전형필은 그렇게 쌓이는 책들을 보며 참담함에 가슴이 떨렸다. 사

는 게 오죽 힘들면 거간들이 쥐어주는 돈 몇 푼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서를 넘겼을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느 날, 며칠 사이에 들어온 책들을 살피는데, 표지는 허름하지만 내용이 독특한 책이 한 권 보였다. 세로 28센티미터 가로 23센티미터의 목판본인데, 내용 중에 거문고 악보가 있었다.

전형필은 마음을 가다듬고 서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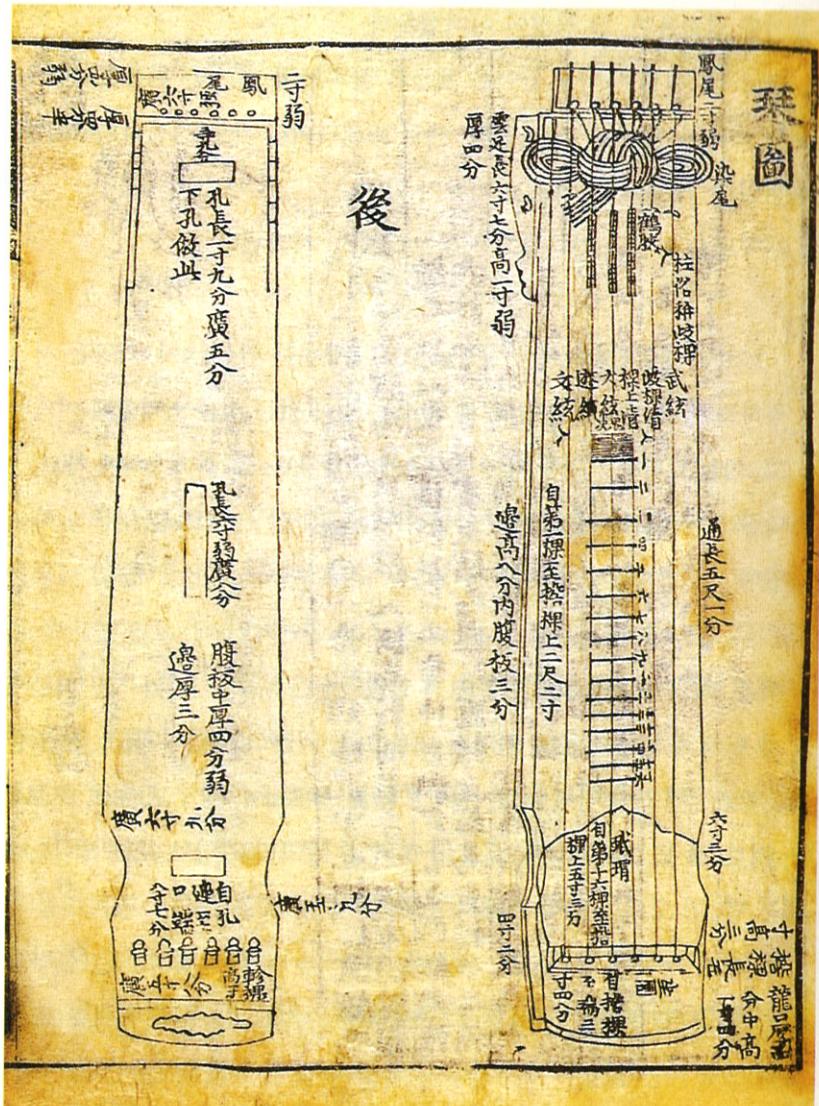
1561년 장악원掌樂院에서 첨정僉正으로 근무하는 안상安璫이, 악공을 시험하는 책에 가락 쓰는 법과 술대 쓰는 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악사 홍선종에게 합자보合字譜를 개수하게 하고, 악공 허억봉에게 적보笛譜를, 악공 이두금에게 장구보仗鼓譜를 만들게 하였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문에 이어진 내용으로, 거문고 그림과 평조, 우조평조, 평조계면조의 산형散形과 집시도執匙圖, 박보拍譜, 장구보仗鼓譜, 고보鼓譜, 적보笛譜 등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악보 보는 법, 소리내는 법, 현 고르는 법이 소개되어 있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문으로, 58쪽에 걸쳐 〈만대엽〉, 〈정석가〉, 〈한림별곡〉, 〈감군은〉, 〈북전〉, 〈여민락〉, 〈보허자〉, 〈사모곡〉 등의 악보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당비파唐琵琶 그림과 비파의 탄법彈法, 조현법을 설명하는 그림과 〈비파만대엽〉의 악보로 구성되었다.



〈금보〉의 한 면, 목판본, 28.0 × 22.4cm, 보물 제283호, 간송미술관 소장.

1561년에 편찬을 시작해 1572년(선조 5년)에 완성했으니, 10년 넘도록 공을 들인 거문고 악보집이었다.

전형필은 책이 범상치 않아 이순황을 불러서 누구에게 샀는지 물어보았으나, 여러 책 속에 끼여 있던 것이라 기억을 하지 못했다. 전형필은 양반집에서 나오는 장서들 중에는 몇십 권짜리 문집도 있고, 이렇게 희귀본도 섞여 있으니, 중간 거간들에게 분산시키지 말고 온전히 갖고 오게끔 당부하라고 일러두었다.

당시 전형필은 알 수 없었지만, 《금보琴譜》에 악보가 수록된 곡 중 <만대엽慢大葉>과 <북전北殿>은 조선 후기에 크게 성한 국악 가곡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곡이었다. 또 <정석가鄭石歌>와 <사모곡思母曲>은 고가요古歌謡였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전기와 후기 음악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으며, 훗날 보물 제283호로 지정되었다.

전형필은 한남서림으로 들어오는 책 중 진서珍書나 희본稀本, 호본好本이 보이면 원로나 신학문을 공부한 학자들과 함께 살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확인되면 보화각에 설치한 '간송문고'로 옮겼다. 전형필의 회고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 간송문고에는 수만 권이 수장되어 있었고, 한문책은 분류를 끝내고 장서 목록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상당수는 한국전쟁 때 분실되었다.

당시 한남서림에는 고서하나 골동 거간들뿐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드나들었다. 어문학 연구에 조예가 깊었던 김태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김태준은 대학 졸업 후 경학원(지금의 성균관대학교)과 경성제국대학 등에서 조선문학을 강의했다.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출중했고 발표력이 뛰어나서 그의 글은 당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글의 수준이 높아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김태준은 여러 제자 중에서도 서예가 이용준(李容準, 1916~?)을 가장 좋아했다. 경북 안동군 와룡면 주하리에 사는 진성 이씨 한결의 셋째아들로, 글씨도 잘 쓰고 한학 漢學에도 밝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인 스승의 뒤를 따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스승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가문의 선조가 여진 정벌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으로 세종대왕께 《훈민정음》을 하사받아 세전가보 世傳家寶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1940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김태준은 자신을 만날 때마다 훈민정음 타령을 하던 전형필을 떠올렸다.

“집에 내려가서 《훈민정음》을 볼 수 있겠나?”

“제가 언제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날, 김태준은 한남서림으로 전형필을 찾아왔다.

“간송, 놀라지 마시오. 《훈민정음》이 나타난 것 같소.”

김태준(金台俊, 1905~1949)



천태산인 金台俊 이라는 필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국문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중국문학과 국문학을 전공하던 1930년, 《동아일보》에 '조선소설사'를 68회에 걸쳐 연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어문학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김삿갓 시의 문학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는 삿갓 아래로 본 세상을 골계·풍자·해학의 여러 법과 파격적인 시, 시희 詩戲, 자희 字戲 등으로 이를 음파 呵破하여버렸다"라고 세상에 소개했다.

1931년에는 이희승 李熙昇 등과 조선어문학회를 결성했고, 같은 해에 《조선 한문학사》를 발간, 한문학과 국문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한국문학사를 정립했다.

전형필은 깜짝 놀라 김태준의 책가방을 빼앗을 듯 노려보며 물었다.

“어디 있소?”

“아직 확인하지 못했소. 만약 진본이라면 간송이 구입하겠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오? 어서 가져오기나 하세요. 아니, 나와 같이 갑시다. 어디요?”

흥분하여 앞장서려는 전형필을 진정시킨 김태준이 말했다.

“우선은 진본인지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매각 의사를 물어봐야 하오.”

김태준은 전형필의 구입 의사를 확인하고 며칠 후 이용준과 함께 그의 시골집으로 갔다. 이용준이 내어준 《훈민정음》을 살펴보니, 자신이 경성제대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본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관련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 자세했다. 《실록》에 언급된 '해례본'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용준이 보여준 책에는 첫머리 두 장이 없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언문책 소지자를 염별하던 연산군 때 부득이 첫머리 두장을 찢어버렸다는 가문의 전승 傳承이 있다고 했다. 김태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훈민정음》 매각을 통해 얻게 될 구전으로,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경성콤그룹'의 활동자금을 충당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성콤그룹은 이현상, 박현영, 이관술, 김삼룡이 주축이 된 사회주의 지하조직이었고, 김태준은 인민전선부를 맡고 있었다. 당시 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만이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지하활동을 했

고, 김태준도 그랬다.

김태준은 전형필에게 값을 많이 받으려면 경성제대 도서관에 있는 《세종실록》을 다시 본 후 첫 두장을 복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저러한 생각을 경성콤그룹의 조직원이 된 이용준에게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조직의 활동자금을 댈 수 있다니 제가 오히려 더 기쁩니다. 그것 말고도 고서가 몇 권 더 있습니다, 선생님!”

이로써 ‘소유자’의 매각 의사는 확인된 셈이었다. 그러나 김태준은 혹시라도 훗날 이용준이 체포될 때를 대비해, 구입할 상대가 전형필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용준 역시 《훈민정음》이 자기 집안의 세전가보가 아니라 처갓집인 광산 김씨 종택 궁구당^{肯構堂}에서 빌려왔다는 사실과, 언문책 소지자를 염벌하던 연산군 때 부득이 첫머리 두장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경성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복원 작업을 시작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암기의 천재’라고 불리던 김태준은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세종실록》을 보고 외워다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로 특선할 정도로 글씨를 잘 쓰는 이용준에게 안평대군체로 적게 했다.

한편, 전형필은 《훈민정음》의 진위를 확인하려 간 김태준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전형필은 진본이 아닌 모양이라고, 김태준이 무안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쓴 입맛만 다셨다.

겨울로 접어들 무렵, 김태준과 이용준은 내용 복원과 안평대군체 연

습을 끝냈다. 이제 《훈민정음》의 종이와 비슷한 누런색 한지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경성콤그룹 조직원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어, 시내를 활보하는 건 위험했다.

두 사람은 안동 이용준의 집으로 갔다. 한지를 쇠죽솥에 넣고 삶아 누런색이 나게 했지만, 겨울 찬바람에는 종이가 잘 마르지 않아 봄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태준은 떠나야 했다. 낯선 사람이 시골에 오래 머물면 더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김태준은 떠날 채비를 하며 이용준에게, 종이가 완성되면 글씨를 쓴 후 연락하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자신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해가 바뀌면서 이관술을 필두로 이현상, 김삼룡이 검거되었고 김태준도 붙잡혔다. 이용준은 조직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검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준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2년 후인 1943년 여름이었다. 감옥에 갇힌 사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머니와 아내는 화병으로, 독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태준은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좌절과 분노로 괴로워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김태준 앞에 이용준이 나타났다.

“선생님, 《훈민정음》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분하면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용준이 돌아간 후 김태준은, 사회주의자로 세상에 알려진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전형필을 만날지 고민했다. 불쑥 한남서림으로 찾아가면

전형필이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종로 4가 집이나 가끔 들러 책 이야기를 나누던 북단장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전형필을 오해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물론 이용준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전형필이 《훈민정음》이 진본임을 인정할지가 문제였다.

잠시 마당을 서성이며 궁리하던 김태준은 방으로 들어와 편지지를 꺼냈다.

제번除煩하옵고……

전에 간송에게 말씀드렸던 책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일신상의 사정이 생겨 연락드리지 못했소.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아직 시골에 있고 진본이 틀림없소. 닷새 후 오후 1시경 한남서림 앞을 지나갈 터이니, 어찌하실지 결정해주시오. 天山拜

호인 천태산人天台山人을 줄여 천산天山이라고 쓴 후, 봉투의 발신인 난에는 김천산이라고 썼다.

이틀 후 편지를 받은 전형필은, 그 책이 그토록 기다리던 《훈민정음》임과 편지를 보낸 이가 김태준임을 알았다. 일신상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일제가 한글 말살에 혈안이 되어 조선어학회 학자들까지 잡아들인 상황에서 사회주의자 김태준을 통해 《훈민정음》을 구입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다른 일로 그가 다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참지 못하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그동안 모은 수장품과 간송문고까지 문제가 될 터였다.

전형필은 일단 마당으로 나가 편지를 불살랐다. 타들어가는 편지를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밤을 꼬박 새우며 전형필은 《훈민정음》 구할 방도를 궁리했다. 김태준이 사회주의자라고 《훈민정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김태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다음 날, 전형필은 한남서림에서 이순황을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김태준이 검거되면서 사회주의자임이 만천하에 알려진 터였다.

“김태준 교수가 직접 나서면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거요. 이 선생이 《훈민정음》이 있는 곳에 다녀와주실 수 있겠소?”

이순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전형필은 이순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덧붙였다.

“그가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이 걸리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되니…….”

전형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순황이 정색을 했다.

“간송! 그런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또 나 아니면 누굴 믿고 보내시겠습니까?”

이순황이 화를 내듯 말했지만 전형필은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소, 이 선생. 사실 내가 이 선생 말고 누굴 믿겠소?”

이순황이 《훈민정음》 값으로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말은 편지에도 없어서 나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의 가치가 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저도 간송이 그 정도 생각하시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그렇게 비싼 값을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당시 지방 양반집에서 올라오는 책 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다. 경성과 지방의 물가가 다르고, 옛책의 가치를 서화나 도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간들이 지방에서 책을 구입할 때, 아무리 귀한 책도 100원 이상을 쳐주지 않았다. 희귀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것은, 경성에 올라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다음의 일이었다.

“나도 김 교수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소유주에게 만 원은 줘야 하고, 김 교수에게도 구전으로 천 원 정도는 줄 생각입니다. 물론 형식은 구전이지만, 책을 찾아준 데 대한 보답이오.”

전형필은 생각 같아서는 더 주고 싶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훗날 상황을 봄가면서 더 주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혼자서 지방에 큰돈을 가지고 가기는 위험하고, 책을 가지고 올 때도 또한 그러하니, 경호 삼아 힘깨나 쓰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무슨 책 인지는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대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간다고 해도, 워낙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종종 흉악한 일이 생기니, 안전하게 준비해서 다녀오세요.”

사실 전형필은 한시라도 빨리 《훈민정음》을 손에 넣기 위해 택시를 대절해 보낼 생각도 했다. 그러나 시골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며 요란을 떨면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기차를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

준비를 끝낸 전형필은 초조한 마음으로 김태준을 기다렸다. 그사이에 또 체포되면 어찌나,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나…… 이런저런 걱정에 하루가 여삼추였다. 혹시 하루 먼저 올지도 몰라 전날부터 한남서림에 틀어박혀 종일 밖을 내다봤다. 저녁에 집에 가서도 온통 김태준과 《훈민정음》 생각뿐이었다. 꿈에서도 김태준이 보였다. 《훈민정음》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는, 자신을 보고 멀리 뛰어가고, 그 뒤에서 일본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쫓아가는 광경이 보여 깜짝 놀라서 일어나기도 했다.

밤에 빗소리가 들렸는데 아침 하늘은 맑았다. 좋은 징조이려나. 전형필은 먹는 등 마는 등 아침상을 물리고, 돈을 준비해 한남서림으로 갔다. 김태준이 1시에 나타나면 이순황을 오후 기차에 태워 내려보낼 생각이었다.

여름 날씨가 더워서인가, 기다림에 땀이 나서인가. 전형필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루가 여삼추가 아니라, 일각이 여삼추로 흘렀다.

저만치 말끔히 정장을 하고 안국동 쪽에서 걸어오는 김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전형필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일어나 뛰쳐나가서는 김태준의 손을 붙잡고 한남서림으로 들어왔다.

“천태산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내 면회도 한 번 못 갔소이다.”

전형필은 그의 손을 흔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간송이 이리 반갑게 맞아주시니 정말 고맙소.”

김태준 역시 전형필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는 안도했다.

“그런데 어딜 이렇게 바빠 가시오? 내게 볼일은 없으시오?”

전형필이 짐짓 모르는 체 문자, 김태준도 그의 의중을 알아차렸다.

“간송! 일전에 얘기했지만, 안동에서 《훈민정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 직접 확인해봤더니 진본이 틀림없었소. 그러나 앞의 두 장은 연산군 때 언문 탄압을 피하느라 찢어진 걸 저와 소유자가 복원을 했소이다. 간송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했소만…….”

김태준은 이순황이 건넨 물을 별컥벌컥 들이켰다.

“《훈민정음》이라니, 정말 놀랍고 반갑구려. 천태산인이 직접 확인까지 하셨다니 진위는 따져볼 것도 없고…… 큰 경사요, 경사!”

전형필은 이제 《훈민정음》이 거의 다 들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유주가 얼마나 말씀하셨소?”

전형필이 조심스럽게 문자, 김태준이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다.

“값이 좀 셉니다.”

김태준이 망설이자 전형필이 어서 말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 원을 달립니다.”

김태준은 자신이 너무 많이 부른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전형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전형필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태산인, 그런 귀한 보물의 가치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열 채라도 부족하오.”

김태준은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전형필의 표정을 살폈다. 전형필이 눈짓을 하자 이순황이 보자기 두 개를 전형필에게 건넸다. 전형

필은 그중 천 원이 담긴 보자기를 김태준에게 밀었다.

“이건 《훈민정음》 값이 아니라, 천태산인께 드리는 사례요. 제가 성의로 천 원을 준비했소.”

김태준은 놀란 눈빛으로 전형필을 바라봤다. 사례비가 너무 많다고 말하려는데, 전형필이 말을 이었다.

“《훈민정음》 값으로는 만 원을 쳤습니다.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제 입장이 있고 또 남의 이목도 있으니, 《훈민정음》을 인수하는 건 여기 이순황 선생이 맡아주실 겁니다. 이해해주시겠지요?”

김태준은 만 원이라는 소리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전형필의 배포가 남 다르고, 부르는 값이 낮아도 정당한 값을 계산해서 치른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 원이라니! 《훈민정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로서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큰돈이라, 할 말을 잊은 채 한동안 전형필을 바라보았다.

“간송의 후덕한 인품에 감탄할 뿐이오. 사례비로 천 원은 너무 큰돈이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 염치 불구하고 받겠소. 소유자는 내 제자이니, 내가 써드리는 편지를 갖고 가시면 차질 없이 인수하실 수 있을 거요.”

김태준은 이순황에게 편지지와 봉투를 달라고 해서 이용준에게 전할 편지를 썼다. 고서를 수집하는 어느 분이 책 값으로 만 원을 책정해 인편으로 내려보내니 정중하게 책을 건네고, 책 값을 과분하게 받았으니 다른 책도 몇 권 더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쓴 김태준이 봉투에 이용준의 주소와 이름을 적은 후 전형필에게 건넸다.

“여기 써어 있는 주소로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훈민정음》은 이 집의 세전가보라고 하니, 나중에라도 어디서 나왔는지 소문이 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나도 간송이 구입하신다는 말은 하지 않았소.”

“천태산인,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국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존재는 비밀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 다. 훗날 조선이 해방되면 그때 세상에 내놓겠지만, 그때도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소.”

“맞아요. 간송의 판단이 정확하오. 지금은 이 책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지만, 해방이 되면 조선의 보물이 될 게요. 그때까지 간송이 잘 간직해주시오.”

“고맙소, 천태산인. 그 와중에도 내가 《훈민정음》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연결해주셨구려.”

전형필은 김태준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준도 전형필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간송께 정말 고맙소. 내가 다시 일경에 불잡히게 되더라도, 이 일은 끝까지 함구할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번에는 김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전형필이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지.

훈민정음 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우리글. 마침내 전형필 앞에 놓인 《훈민정음》은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한글을 만든 원리와 문자 사용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상세하게 밝힌 해례본 解例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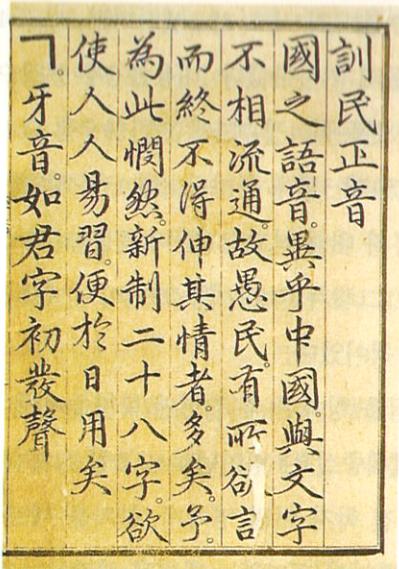
전형필은 떨리는 손으로 세로 23.3센티미터, 가로 16.8센티미터의 원본 《훈민정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내용은 3부 3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훈민정음 본문을 4장 7면에 면마다 7행 11자씩, 제2부는 훈민정음 해례를 26장 51면 3행에 면마다 8행 13자씩, 제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한 자 내려 싣고, 그 끝에 정통 正統 11년(1446) 9월 상한 上憲을 명시하고 있다. 그해가 바로 세종 28년이니, 《세종실록》에서 언급한 해례본이 바로 이 책이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 집현전 학자들에게 해례본을 만들도록 명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 병인년(1446) 9월 29일자에 기록되어 있다.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 여덟 명에게, 문자를 새로 만든 목적과 원리 그리고 글꼴을 결합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해례본을 만들게 했고, 3년 후인 1446년 음력 9월 상순 上旬에 발간되었다. 해례본이 완성되자 세종대왕은 새로 만든 글자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했고, 해례본도 함께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전형필은 밤이 새도록 《훈민정음》을 읽고 또 읽었다. 만들어진 지 500년 만에 발굴된 보물 중의 보물이었고, 전형필이 수집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성취한 대발굴이었기에, 눈물을 흘리다가는 웃었고, 웃다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무렵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전형필은 《훈민정음》을 자신이 수장하고 있는 수집품 중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갈 때도 품속에 품었고, 잘 때는 베개 속에 넣고 지켰다.



《세종실록》 1446년 9월 29일자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학께서 정음正音 28자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은 칠조七調에 힘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氣의 정도함이 구비 포함되거나 않은 것 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단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 듣지, 닦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고 최향崔恒, 부교리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 강희안姜希顥,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端, 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概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국역: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재)민족문화추진위원회



《훈민정음》, 목판본, 23.3×16.8cm,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간송미술관 소장

전형필이 그렇게 지킨 《훈민정음》이었기에, 원수장처인 광산 김씨 종택 궁구당의 현재 종손 김대중 씨는 “출처가 우리 집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형필 선생이 그걸 밝혀주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책인지도 몰랐다. 우리 집에 계속 있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가져다 귀중한 책임을 알리고, 잘 보관해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했다. 궁구당에서 책을 빌려간 이용준은 당시 종손의 사위고, 지금 종손의 고모부다. 그래서 당시 집안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훈민정음》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태준은 다음 해인 1944년 경성콤그룹 동지였던 박진홍과 결혼한 후,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겠다며 연안으로 갔다. 그리고 광복 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와 남로당 핵심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9년 7월 26일 검거되었다.

“지금 조선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화 사업이 있다면 술한 고전을 수집하여 철저하게 고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인된다면 상아탑에 돌아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태준의 최후 진술이다. 그러나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 학자’는 시대를 잘못 만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용준은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월북해서 조용히 생을 마쳤다.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그가 할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발굴되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무사히 지켜진 《훈민정음》! 1956년 통문관에서 학계의 연구를 위해 영인본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하자, 전형필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

다. 그리고 손수 한 장 한 장 해체해서 사진을 찍게 했다. 이렇게 출판된 《훈민정음》 영인본을 통해 많은 학자가 체계적으로 한글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전형필에 의해 발굴되고 지켜지고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은, 1962년 12월에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전형필이 살아 있었다면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것이다.